

2021년 김정은 연설 분석과 전망 및 정책 고려사항

_ R 텍스트마이닝 기법 활용

김호홍 수석연구위원 | 김진수 책임연구위원
chan1304@inss.re.kr | sisu375@inss.re.kr

- I. 서론: 연구의 목적과 방법
- II. 선행연구 검토
- III. 분석 결과
- IV. 전망 및 정책 고려사항

국문 초록

본 보고서는 2021년 북한 김정은의 공개연설 및 북한 언론의 김정은 연설 보도문 내용을 R 텍스트마이닝 기법으로 분석, 김정은의 주요 관심사와 정책 우선순위 등을 추정하고 향후 전망과 정책 고려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분석결과 ‘우리’, ‘동지’, ‘인민’ 등 일체감을 강조하는 용어와 ‘사회’, ‘주의’, ‘혁명’, ‘건설’, ‘투쟁’, ‘발전’ 등 이념지향적 및 미래지향적 단어들도 높은 빈도를 차지하였다. 또한, ‘생활’, ‘경제’, ‘살림’, ‘기쁨’ 등 경제관련 용어들도 많이 사용하였다. 김정은은 2012년 4월15일 첫 공개연설에서 정통성(인민)과 국방력 강화, 민생·경제, 조국통일 등을 강조하였고, 집권 10주년을 앞둔 2021년 제8차 당대회에서 각 분야 실적을 평가하고 성과를 독려하였다. 2021년 공개연설에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과 내용들이 반영되어 나타난 것으로 분석되었다. 북한은 민생경제를 중심으로 하는 내치(內治)에 주력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2022년 들어 미사일 도발을 지속하고 있어 당분간 북미·남북대화 재개 등 관계개선의 돌파구 마련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올해 들어 코로나19 사태가 변곡점을 맞고 있고 남한에 새로운 정부 출범 및 비핵화협상 교착 장기화에 대한 바이든 정부의 부담, 김정은의 인민경제 회생 필요 인식 등을 고려할 때 상황개선의 여지는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확고한 원칙을 바탕으로 강온 양면의 투트랙 전략을 통해 한반도 안보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새로운 남북관계의 패러다임을 정립해 나갈 필요가 있다.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강력한 국방력과 긴밀한 한미공조를 바탕으로 ‘도발 불용’의 분명한 의지를 보여주어야 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 등 국제사회 협력 하에 코로나19 백신을 비롯한 대북 인도적 지원을 추진하고, △대미·대북의 쉼 방위적인 소통과 관여 및 북한에 대한 ‘남북관계 발전의 비전과 청사진’ 제시 등으로 북한이 도발보다는 협력을 선택하도록 유도해나가야 한다.

핵심어: 텍스트마이닝, 공개연설, 서한문, 보도자료, 감성분석

목차

I. 서론: 연구의 목적과 방법

II. 선행연구 검토

III. 분석 결과

가. 주요 관심사

나. 핵심 키워드 관련 특이사항

다. 감성 분석

IV. 전망 및 정책 고려사항

가. 시사점과 함의

나. 전망 및 정책 고려사항

I. 서론: 연구의 목적과 방법

- 북한은 3대 세습정권으로 유일지배 체제의 특성이 뚜렷하게 유지되고 있어 김정은의 언급 내용(교시)은 절대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음
 - 김정은의 언급 내용이나 지시사항은 북한의 국가운영 방향 설정뿐만 아니라 정책을 수립·집행하는 일선 관료들의 사고와 행동에도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
 - 특히, 공개연설은 김정은이 북한 인민들과 국제사회에 전하는 메시지라는 점에서 의도하여 준비된 내용이기 때문에 김정은의 철학과 관점, 국정운영 구상 등을 잘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
- 본 연구는 지난 1년 동안 북한 최고 통치자 김정은의 공개연설을 통해 그의 관심사와 정책 우선순위, 주요 사안에 대한 대응 방향 등을 유추해 보는 데 목적이 있음
- 북한은 폐쇄사회의 특성상 계량적 통계에 접근이 어려운 실정
 - GDP나 환율, 수출입 통계 등 기본적인 데이터들조차 구하기 어렵고 무역통계의 경우 무역상대국들 대상 간접적으로 수출입 규모를 역산하는 등¹⁾ 간접적 방식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는 한계
 - 이러한 현실하에서 공식 매체인 신문과 방송은 북한의 현실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창(窓)으로 의미가 있으며, 특히 최근 비정형 데이터들에 대한 분석이 여러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텍스트는 비정형 데이터들중에서도 가장 큰 비중을 차지²⁾

1) KOTRA, “북한 대외무역 통계”(2021), https://dream.kotra.or.kr/dream/cms/com/index.do?MENU_ID=1330

2) 통계청 통계교육원, “통계는 어떻게 분석되는가”(2017) http://sti.kostat.go.kr/window/2017b/html/2017_win_3.html

- 본 연구는 2021년 1년 동안 북한 노동신문과 방송에서 보도된 김정은의 연설 내용을 텍스트 마이닝 기법을 활용하여 분석
 - 텍스트마이닝은 텍스트들을 대상으로 감성 분석, 토픽모델링, 의미연결망 분석, 빈도분석 등의 방법으로 숨겨진 관계 또는 패턴을 분석하여 화자의 의도를 추정하고 미래를 예측하는 기법으로, 최근들어 빅데이터 활성화에 따라 활용범위 확대³⁾
 - 텍스트마이닝 기법분석 도구로는 통계처리 프로그램으로 널리 쓰이는 R 프로그램을 활용하였고, R의 자연어 분석 패키지인 KoNLP (Korean Natural Language Processing)의 형태소 사전(NiaDic)을 사용⁴⁾
- 분석대상 자료는 2021년 김정은 연설문·서한문 및 보도자료 가운데 유의미한 것으로 판단되는 평균 3,000자 이상 텍스트들을 시기와 유형별(직접 발표·서한문 및 보도자료)로 나누어 18개 파일로 분류⁵⁾
 - 김정은의 직접적인 육성 발표문이나 대규모 행사에 보낸 서한문 등은 11개 파일로 총 84,145자, 23,198개의 단어로 구성
 - 김정은의 육성 원문은 아니지만 언급 내용을 그대로 소개하는 보도자료는 7개 파일로 총 78,795자, 21,996개의 단어로 구성

3) 통계청산하 통계교육원의 텍스트마이닝 분석기법에 대한 설명을 요약, 전재 http://sti.kostat.go.kr/window/2017b/html/2017_win_3.html

4) 브런치, "KoNLP를 이용한 한국어 형태소 분석"(2022) <https://brunch.co.kr/@mapthecity/9>

5) 3,000자 미만 보도물 등의 경우 김정은의 지시사항을 단편적으로 담거나 인용하고 있어 분석 실효성이 확보되지 않음에 따라 제외

[표 1] 김정은 연설·서한문 및 보도문

구분	내용
연설·서한문 ⁶⁾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선로동당 제8차 대회 개회사(21.1.6) • 조선로동당 제8차 대회 폐회사(21.1.13) • 조선로동당 제8차 대회 결론(21.1.13) • 평양시 1만 세대 살림집 건설 착공식에서 하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연설(21.3.23) • 조선로동당 제6차 세포비서대회에서 한 개회사/결론(21.4.7, 4.9) • 사회주의애국청년동맹 제10차 대회에 보낸 서한(21.4.29) • 조선 직업총동맹 제8차 대회 참가자들에게 보낸 서한(21.5.25) • 조선 사회주의여성동맹 제7차 대회 참가자들에게 보낸 서한(21.6.20) • 제7차 전국로병대회에서 하신 김정은 동지의 연설(21.7.27) • 국방발전전략대회에서 하신 김정은 동지의 기념연설(21.10.11) • 제5차 3대혁명선구자대회 참가자들에 보낸 서한(21.11.18)
연설내용 보도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선로동당 제8차 대회에서 하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보고에 대하여(21.1.9) •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2차 전원회의에 관한 보도(21.2.12) •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개강사를 하시였다(21.3.4)/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강령적인 결론을 하시였다(21.3.5) •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제6차 세포비서 대회에서 결론을 하시였다(21.4.9) •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3차 전원회의 개회(21.6.12) • 조선인민군 제1차 지휘관, 정치일군 강습회 진행/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강습회를 지도하시였다(21.7.30) •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력사적인 시정연설 《사회주의 건설의 새로운 발전을 위한 당면 투쟁방향에 대하여》를 하시였다(2021.9.30)

*출처: 로동신문 등 북한언론 보도내용 참고

- 이와 같은 방법으로 18개의 파일을 분석한 결과는 아래 [표 2], [표 3]과 같으며, 김정은 육성자료의 경우 최소 447단어에서 최대 1,944단어, 보도자료는 최소 670 단어에서 최대 4,387 단어로 구성

6) 실제 연설하였거나 서한문을 보낸 일자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보도일자와는 1~2일 정도 시차가 있음.

[표 2] 김정은 육성자료 분석대상 단어

육성자료	1<단어<8 ⁷⁾
21.1.6	940
21.1.13	543
21.1.13	1,222
21.3.24	824
21.4.7	447
21.4.30	1,797
21.5.27	1,845
21.6.22	1,884
21.7.28	767
21.10.12	1,102
21.11.19	1,944

[표 3] 김정은 보도자료 분석대상 단어

보도자료	1<단어<8
21.1.9	4,387
21.2.12	2,438
21.3.4	1,381
21.4.9	1,970
21.6.12	670
21.7.30	1,771
21.9.30	1,689

7) 1글자의 경우 통계처리가 어려우며 7글자를 초과하는 경우도 지나치게 많은 단어들 포함되는 등 통계처리에 문제가 있음에 따라 단어 크기(글자수)를 1<단어<8로 지정.

II. 선행연구 검토

- 텍스트마이닝 기법을 활용한 북한 분석은 주로 2015년 이후 이루어졌으며, 신년사와 노동신문 사설·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김정일 선집 등 다양한 대상들을 분석대상으로 활용
- 박종희·박은정·조동준 등은 텍스트마이닝 기법을 활용하여 1946년부터 2015년까지 북한 신년사를 전수 분석⁸⁾
 - 신년사들을 문서 간 상관성 및 시간적 변화 등에 따른 거시분석과 문서내 사용된 단어들의 사용방식에 따른 미시분석을 통해 북한의 태도나 향후 대내외적 정책방향을 가늠해 본 결과 실제 관측된 정책방향과 상관관계가 높은 것으로 평가
- 김상권·박철수 등은 2018년 1월부터 12월까지 노동신문 사설 86건을 대상으로 남북관계 변화에 따른 노동신문 사설 변화를 추적⁹⁾
 - 2018년은 평창동계올림픽과 남북정상회담 개최 등 사건들에 주목하면서 분석한 결과, 부정적 표현보다는 긍정적 표현이 더 많이 사용되는 등 일정부분 상관성이 있었던 것으로 분석
- 박철수는 김정은의 2017년~2019년 신년사 및 2019년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 등 4개의 문건을 토대로 텍스트마이닝 분석을 진행¹⁰⁾
 - △2017년 신년사는 김정은이 확고한 통치권을 행사하는 시기로 핵실험 성공과 경제활력 회복에 따른 자신감 표출 △2018년과 2019년 신년사는 남북 화해무드에 편승, 군사적 긴장완화와 평화적 환경마련에 초점 △2019년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은 하노이 회담 실패에도 불구하고, 남북·북미관계를 인내를 갖고 풀어나가겠다는 의지 표명

8) 박종희·박은정·조동준, “북한 신년사(1946-2015)에 대한 자동화된 텍스트 분석”, 한국정치학회보, 제49집 제2호, 한국정치학회(2015)

9) 김상권·박철수, “2018년 노동신문 사설과 한반도의 정치적·사회적 사건간의 연관성 분석-텍스트마이닝 분석을 중심으로”, 북한연구학회보, 제23집 제2호, 북한연구학회(2019)

10) 박철수, “텍스트마이닝을 활용한 북한 지도자의 신년사 및 연설문 트렌드 연구”, Journal of Information Technology Applications & Management, 한국데이터전략학회(2019)

- 이해정·신훈식·이혜진 등은 2012년~2019년까지 신년사, 사회주의 위업의 완성을 위한 과업제시(2016년), 당 중앙위 사업총화보고(2016년), 노동당 중앙위 제7기 5차 전원회의 보도(2020년) 등 총 17개의 문건내 단어 간 네트워크 분석기법을 통해 경제정책 변화를 추적¹¹⁾
 - 2012년 집권이후 꾸준히 ‘경제강국 건설’과 ‘인민생활 향상’을 강조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제정책 또한 실용주의 노선을 표방하면서 거점 중심의 경제개발 전략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인 것으로 분석

- 송종호·이상원은 김일성 저작집(1930~1994), 김정일 선집(1964~2010) 및 김정은 연설 문건(2012~2015)을 토대로 김정은의 권력집중도를 분석하였고,¹²⁾ 이창용·문호석은 『월간 북한동향』(통일부)을 토대로 북한매체들의 보도에서 긍·부정적 표현과 북한도발 간 연관성을 분석¹³⁾

- 본 연구는 신년사나 문건 등 특정 테마를 대상으로 하는 기존 연구와 달리 1년 동안 김정은이 수행한 연설내용 모두를 분석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음
 - 코로나19에 따른 국경봉쇄·국제사회 제재·기후변화 등 격변의 시기에 김정은이 지난 1년간 국정 운영 전반에서 어떤 관점을 가지고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었는지에 대한 유추가 가능하다는 점에 의미
 - 다만, 2021년 한해를 기간으로 분석을 하였기 때문에 이전 연도들과 비교·분석이 미흡하며, 연중 다양한 분야를 대상으로 김정은이 행한 연설(또는 서한)을 분석함으로써 일정한 분야 또는 대상을 기준으로 흐름과 추세를 분석하는데는 한계

11) 이해정·신훈식·이혜진, “텍스트 마이닝을 통한 김정은 시대 경제정책 분석”, 국가전략 제27집 제1호, 세종연구소(2021년)
 12) 송종호·이상원, “빅데이터 기법을 활용한 북한의 권력구조 분석”, 2015 세계북한학 학술대회 발표자료(2015)
 13) 이창용·문호석, “텍스트마이닝을 이용한 북한 보도동향과 북한 도발과의 연관성 분석”, 국방연구 59권 4호,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2016년)

III. 분석 결과

가. 주요 관심사

- 김정은의 육성(연설·서한문) 파일 11건 전체를 분석한 결과, 빈출상위 100개 단어는 우리, 사업, 사회, 주의, 조직, 청년, 혁명, 건설, 발전, 운동, 동지 등 순으로 나타남([표 4] 참고)

[표 4] 김정은 육성 빈출상위 100개 단어

순위	단어	빈도수	순위	단어	빈도수	순위	단어	빈도수	순위	단어	빈도수
1	우리	438	26	쟁취	63	51	기술	45	76	전당	30
2	사업	227	27	조선	62	52	지도	45	77	준비	30
3	사회	222	28	단위	61	53	창조	45	78	미래	29
4	주의	194	29	중요	60	54	당대회	44	79	기간	28
5	조직	190	30	국가	59	55	인민의	43	80	위업	28
6	청년	161	31	전체	59	56	소조	41	81	과정	27
7	혁명	135	32	대회	57	57	적극	41	82	당중앙 위원회	27
8	건설	127	33	조국	56	58	관철	39	83	이룩	27
9	3대혁명	125	34	승리	55	59	세대	39	84	전승	27
10	투쟁	125	35	시대	55	60	정치	39	85	초급	27
11	발전	121	36	붉은기	54	61	당원	38	86	홀륭	27
12	운동	102	37	애국	54	62	로동당	38	87	계획	26
13	당의	96	38	청년동맹	53	63	여기	38	88	도덕	26
14	직명	95	39	나라	50	64	경제	37	89	발휘	26
15	인민	93	40	수행	50	65	진행	37	90	이번	26
16	동지	87	41	요구	50	66	동맹원	36	91	단계	25
17	강화	86	42	부문	49	67	맹조	36	92	로선	25
18	자기	85	43	결정	48	68	정신	36	93	마음	25
19	맹원	84	44	문화	48	69	역할	35	94	성과	25
20	생활	82	45	사상	47	70	과학	32	95	세포	25
21	녀성	73	46	오늘	47	71	교양	32	96	영예	25
22	동맹	69	47	전진	47	72	누구	32	97	총화	25
23	당과	66	48	문제	46	73	대표	32	98	기풍	24
24	위대	64	49	비롯	46	74	하나	32	99	대중	24
25	로동계급	63	50	과업	45	75	수준	30	100	살림	24

- 인민대중과 자신과의 일체감을 강조하는 ‘우리’, ‘동지’ 및 ‘인민’ 용어가 많이 사용된 가운데, ‘사회’, ‘주의’, ‘혁명’, ‘건설’, ‘투쟁’, ‘발전’ 등 이념적 용어와 미래지향적 단어들도 높은 빈도 ([그림 1] 참고)
 - 이는 기본적으로, 김정은 자신이 인민의 삶을 책임지고 있는 영도자라는 점을 부각하고, 이러한 관점 하에서 ‘김정은 정권’의 미래와 비전을 인민들에게 제시하기 위한 의도로 볼 수 있음
 - ‘우리’, ‘동지’, ‘인민’ 등 용어를 많이 사용한 것은 김정은 시대 통치철학 가운데 하나로 북한이 당의 기본정치 방식이라고 규정¹⁴⁾한 ‘인민대중 제일주의’ 중시 현상을 반영한 것으로 평가
 - ※ 북한은 8차 당대회에서 인민대중제일주의 정치는 당의 존망과 사회주의의 성패를 좌우하는 기본정치방식이라고 명문화, 영도사상의 중핵은 “모든 것을 인민을 위하여, 모든 것을 인민대중에게 의거하여!”라고 선언
 - 특히, ‘혁명’, ‘건설’, ‘투쟁’, ‘발전’ 등 용어의 빈도가 높은 것은 △당 제7기 5차 전원회의 (2019.12)에서 ‘정면 돌파전’ 선포 △제8차 당대회(2021.1)에서 새로운 국가경제발전계획 (5개년 계획) 채택 등 흐름과 맞닿아 있는 것으로, 새로운 5개년계획 목표 달성에 대한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보임
 - ※ 북한은 제재 장기화를 전제로 추가적 경제악화를 방지, 현상을 유지하는 수준에서 새로운 5개년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보이며,¹⁵⁾ 자력갱생에 기초한 정면돌파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인민들의 혁명적 투쟁의지와 노력을 독려할 필요가 있다는 현실적 판단
 - 또한, ‘생활’, ‘경제’, ‘살림’, ‘기풍’ 등 용어를 다수 사용하고 있는 것은 최근 북한이 당면하고 있는 인민경제 악화와 주민들의 실생활 문제 해결이 절박한 과제를 반영

14) 오경섭·김진하, “조선노동당 제8차 대회 분석(3): 정치 분야”, 통일연구원, Online Series CO21-03, 2021.1.15., p. 2.

15) 임수호, “8차 당대회 이후 북한의 경제전략 기조와 시사점”, 국가안보전략연구원, INSS 전략보고, Mar 2021. No.115, p.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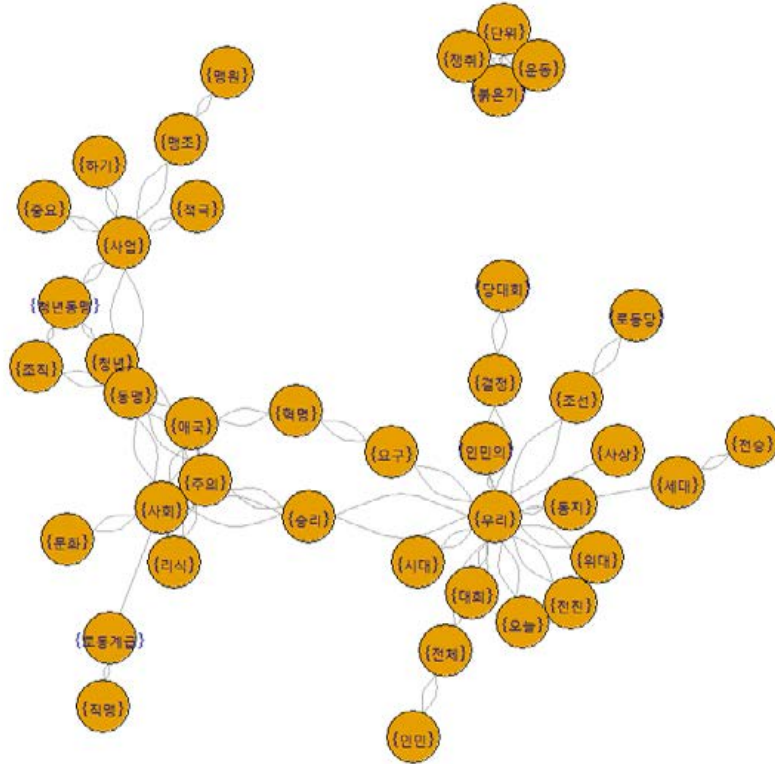
[그림 1] 빈출단어 워드클라우드 결과



- 이밖에 ‘3대혁명’, ‘붉은기’, ‘노동당’, ‘당 중앙위원회’, ‘직업동맹’, ‘청년동맹’, ‘녀성동맹’, ‘당세포’ 등 전통적 용어 또는 특정 계기시 자연스럽게 노출빈도가 높아지는 단어에서는 유의미성을 찾기가 어려움
- 빈출단어들에 대한 의미연결망(word transaction)을¹⁶⁾ 분석한 결과 [그림 2]¹⁷⁾에서 보듯이 ‘우리’와 ‘사업’ 이라는 단어가 연결망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16) 의미연결망은 텍스트내 단어들의 연결망을 분석함으로써 전체 맥락을 이해하고자 할 때 활용하는 텍스트마이닝 분석기법의 일종
 17) [그림 2]는 [표 4의] 빈출상위 100개 단어들 간 빈출값을 계산한 도표(예를 들어 ‘우리’는 438회 사용되었으므로 438×438=191844, 우리(438)×사업(227)=99426)로, 단어들 간 밀접도를 파악할 수 있으며 [그림 3]은 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시각처리한 것임

[그림 2] 빈출단어 의미연결망



- ‘우리’ 단어를 둘러싼 의미들은 ‘인민’, ‘동지’, ‘위대’, ‘오늘’, ‘시대’, ‘전진’, ‘요구’ 등과 함께 연결되어 쓰여 졌으며, ‘사업’을 중심으로는 ‘적극’, ‘청년동맹’, ‘중요’, ‘청년’ 등이 연결되어 사용
 - ※ ‘사회’와 ‘주의’ 단어를 중심으로는 ‘애국’, ‘승리’, ‘문화’, ‘동맹’ 등이 주요 연결고리로 표출
 - ※ ‘우리의 수백만 당원동지들이 애국충성의 심장을 불태우며~’(21년 1월 6일 조선로동당 제 8차 대회 개회사)
 - ※ ‘우리 당과 전체 인민이 새로운 진군을 시작한 때로부터 5년 세월이 흘렀습니다.’(21년 1월 6일 조선로동당 제 8차 대회 개회사)
 - ※ ‘이 사업은 우리 당과 정부에 있어서 최종대과업으로 간주~’(21년 3월 24일 평양 5만세대 살림집 건설 격려 연설)

[그림 3] 빈출단어간 의미연결망 분석 결과

	우리	사업	사회	주의	조직	청년	혁명	건설	3 대 혁명	투쟁	발전	운동	당의	직명	인민	동지	강화	자기	명원	생활
우리	191844	99426	97236	84972	83220	70518	59130	55626	54750	54750	52998	44676	42048	41610	40734	36106	37668	37230	36792	35916
사업	99426	51529	50394	44038	43130	36547	30645	28829	28375	28375	27467	23154	21792	21565	21111	19749	19522	19295	19068	18614
사회	97236	50394	49284	43068	42180	35742	29970	28194	27750	27750	26862	22644	21312	21090	20646	19314	19092	18870	18648	18204
주의	84972	44038	43068	37636	36860	31234	26190	24638	24250	24250	23474	19788	18624	18430	18042	16878	16684	16490	16296	15908
조직	83220	43130	42180	36860	36100	30590	25650	24130	23750	23750	22990	19380	18240	18050	17670	16530	16340	16150	15960	15580
청년	70518	36547	35742	31234	30590	25921	21735	20447	20125	20125	19481	16422	15456	15295	14973	14007	13846	13685	13524	13202
혁명	59130	30645	29970	26190	25650	21735	18225	17145	16875	16875	16335	13770	12960	12825	12555	11745	11610	11475	11340	11070
건설	55626	28829	28194	24638	24130	20447	17145	16129	15875	15875	15367	12954	12192	12065	11811	11049	10922	10795	10668	10414
3대혁명	54750	28375	27750	24250	23750	20125	16875	15875	15625	15625	15125	12750	12000	11875	11625	10875	10750	10625	10500	10250
투쟁	54750	28375	27750	24250	23750	20125	16875	15875	15625	15625	15125	12750	12000	11875	11625	10875	10750	10625	10500	10250
발전	52998	27467	26862	23474	22990	19481	16335	15367	15125	15125	14641	12342	11616	11495	11253	10527	10406	10285	10164	9922
운동	44676	23154	22644	19788	19380	16422	13770	12954	12750	12750	12342	10404	9792	9690	9486	8874	8772	8670	8568	8364
당의	42048	21792	21312	18624	18240	15456	12960	12192	12000	12000	11616	9792	9216	9120	8928	8352	8256	8160	8064	7872
직명	41610	21565	21090	18430	18050	15295	12825	12065	11875	11875	11495	9690	9120	9025	8835	8265	8170	8075	7980	7790
인민	40734	21111	20646	18042	17670	14973	12555	11811	11625	11625	11253	9486	8928	8835	8649	8091	7998	7905	7812	7626
동지	36106	19749	19314	16878	16530	14007	11745	11049	10875	10875	10527	8874	8352	8265	8091	7569	7482	7395	7308	7134
강화	37668	19522	19092	16684	16340	13846	11610	10922	10750	10750	10406	8772	8256	8170	7998	7482	7396	7310	7224	7052
자기	37230	19295	18870	16490	16150	13685	11475	10795	10625	10625	10285	8670	8160	8075	7905	7395	7310	7225	7140	6970
명원	36792	19068	18648	16296	15960	13524	11340	10668	10500	10500	10164	8568	8064	7980	7812	7308	7224	7140	7056	6888
생활	35916	18614	18204	15908	15580	13202	11070	10414	10250	10250	9922	8364	7872	7790	7626	7134	7052	6970	6888	67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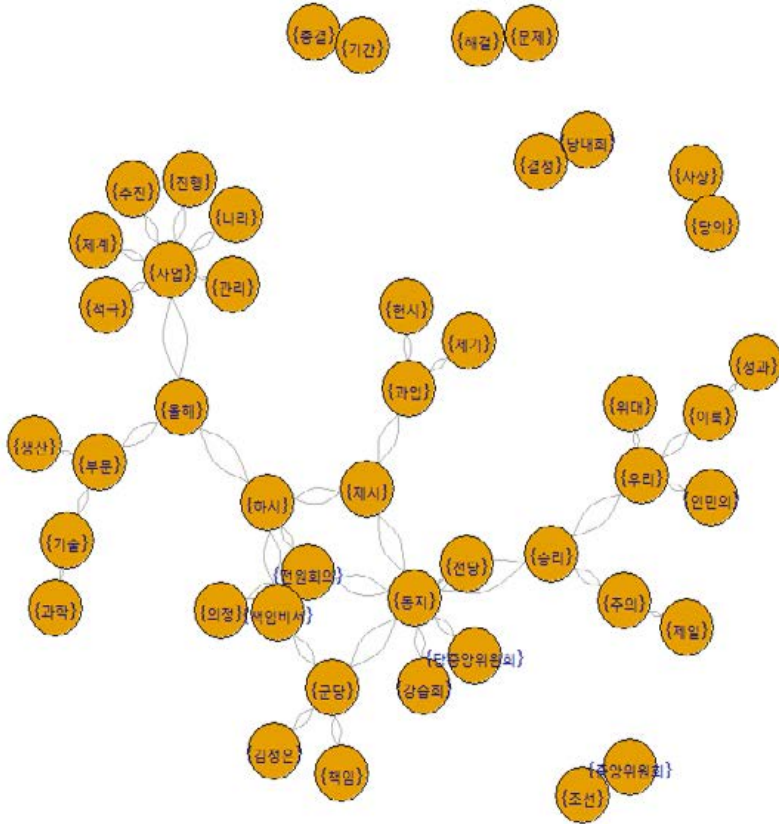
- 이러한 현상은 국제사회의 제재와 코로나19에 따른 국경폐쇄에다 자연재해 등 다양한 부정적 환경 속에서 ‘우리’ 용어를 통해 인민대중과의 일체감을 형성하고 내부 결속을 강화하려는 의도를 반영
- 특히, ‘사업’을 중심으로 다양한 단어(적극·중요·청년 등)들이 연결되는 것은 5개년 계획의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 사업의 성과를 독려하는 실용주의적 측면이 반영된 것이며, ‘시대’·‘전진’ 등 미래지향적 용어들은 어려운 현실을 극복하고 앞으로 나아가자는 메시지를 집중적으로 전달함으로써 김정은 시대 통치 업적을 이끌어내기 위한 포석으로 평가

- 한편, 연설 보도문 파일(7건)에서도 상위 빈출단어들은 김정은 육성파일 분석때와 비슷하게 나타남([표 5] 참고)

[표 5] 김정은 보도자료 빈출상위 100개 단어

순위	단어	빈도수	순위	단어	빈도수	순위	단어	빈도수	순위	단어	빈도수
1	사업	310	26	강조	80	51	제시	48	76	전개	34
2	우리	260	27	당원	80	52	비롯	47	77	집행	34
3	동지	257	28	결정	79	53	올해	47	78	총화	34
4	발전	173	29	자기	78	54	당중앙	46	79	분석	33
5	부문	154	30	정치	78	55	부대	46	80	예로	33
6	과업	147	31	경애	74	56	이룩	46	81	전체	33
7	강화	137	32	생활	72	57	수행	45	82	지적	33
8	주의	134	33	조선	72	58	사상	44	83	하나	33
9	사회	129	34	과학	71	59	제기	44	84	군정간부	32
10	김정은	124	35	요구	69	60	관계	43	85	전진	32
11	인민	124	36	로동당	67	61	위대	43	86	체계	32
12	건설	122	37	기술	65	62	적극	43	87	현실	32
13	총비서	118	38	군당	63	63	역할	42	88	총결	31
14	경제	110	39	관철	61	64	단위	41	89	방법	30
15	문제	109	40	기간	59	65	승리	39	90	보장	30
16	당세포	107	41	당과	59	66	조건	39	91	실현	30
17	혁명	105	42	전원회의	57	67	성과	37	92	위원	30
18	당의	104	43	강습회	56	68	세포	37	93	준비	30
19	보고	101	44	생산	55	69	전당	37	94	지도	30
20	중요	100	45	책임	55	70	관리	36	95	책임비서	30
21	조직	94	46	개선	53	71	인민의	36	96	령도	29
22	투쟁	94	47	당중앙 위원회	52	72	중앙 위원회	36	97	강력	28
23	언급	87	48	진행	51	73	공업	35	98	개발	28
24	국가	83	49	말씀	50	74	교양	35	99	북남	28
25	계획	82	50	나라	49	75	목표	35	100	인민경제	28

[그림 5] 빈출단어 의미 연결망- II



김정은이 공개적으로 사용한 용어를 중심으로 관심사를 유추해 보면 ‘우리’, ‘동지’ 등 인민들의 결속을 강조하는 데 최우선 역점을 두었으며, 국정 분야에서는 경제 회생과 발전(‘사업’, ‘과업’)에 방점을 두고 각 단위와 인민들에게 구체적인 사업성과를 독려하는 데 관심을 기울인 것으로 평가됨([그림 5] 참고)

나. 핵심 키워드 관련 특이사항

- 전반적으로 ‘부정부패’·‘관료주의’ 용어를 지속적으로 사용
 - 김정은 정권이 가지고 있는 외부로부터의 위협과 내부의 동요에 대한 높은 불안감을 드러내는 것으로,¹⁸⁾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데 당·정 관료들의 기강을 다잡고 부패구조를 근절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반영
 - ※ 김정은,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1차 전원회의“유일적 영도 실현에 저해를 주는 당규율 위반행위들과 세도, 관료주의, 부정부패, 특세, 전횡을 비롯한 일체행위들을 감독 조사할 것”(2021.1.11., 중앙통신)
 - 특히, 4월 당 세포비서대회에서는 반사회주의 6회, 비사회주의 5회 및 관료주의와 부정부패에 대해 두 차례 언급하는 등 말단조직 책임자들에 대한 사상통제에 고심하고 있음을 시사
 - 사회주의 애국청년동맹 서한문(4.30, 5회)과 직업총동맹에 발신한 서한문(5.27, 4회)에서도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등 김정일 시대부터 고질적 문제이던 부패·관료주의가 여전히 심각한 함을 반증
- 전국로병대회(7.27)와 국방발전전람회(10.12) 등 특정행사를 제외하면 군(軍) 관련 용어들은 거의 나타나지 않음
 - 북한은 김정은 체제 출범 후 당-국가체제의 복원과 함께 군에서 당으로의 권력이동을 시도하는 한편, 김정일 시대의 선군정치를 기반으로 하는 군사국가에서 당의 역할 회복을 통한 사회주의 정상국가화를 지향하고 있는 바,¹⁹⁾ 이러한 측면을 반영
 - 또한, 새로운 경제개발 5개년계획 목표달성에 국정의 우선순위를 두면서 군 관련 활동이 상대적으로 줄어든 것도 원인으로 작용
 - ※ 김정은, 2021년 75차례 공개 활동가운데 군사훈련 참관이나 군부대 시찰보다는 군 교육과 훈련을 담당하는 간부들을 소집해 인민에게 절대 충성하는 지휘관이 돼야 한다고 강조하는 등 군 기강 잡기에 주력하였으며,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각종 형태의 노동당회의를 여러 차례 개최하며 체제유지와 기강단속 등 내부결속에 방점²⁰⁾

18) 박영자, “내핍과 정풍” 선언한 북한의 제6차 당세포비서 대회,” 통일연구원, Online Series CO21-13(2021.4.19.), p. 3.

19) 김일기, “김정은시대 북한의 권력이동: 당중앙군사위원회와 국방위원회를 중심으로,” 한국동북아논총 제65호(2012), p. 1.

20) 아시아투데이, 2021.12.30. <https://www.asiatoday.co.kr/view.php?key=20211230010018516>

- 제8차 당대회 김정은 총화보고 보도(1.9)에서는²¹⁾ 전반적인 국정운영의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핵심용어들이 높은 빈도로 사용
 - 자립경제와 연관성이 있는 자력, 갱생, 자급자족, 국내생산, 민족경제, 주체공업, 주체철, 원료, 국산화 등 용어들이 총 34회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 ‘정면돌파전’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내부역량 강화를 독려하는 데 주력
 - 경제와 관련된 용어들로는 ‘5개년계획’(24회)과 ‘국가경제’(11회) 단어를 많이 사용, 새롭게 제시한 5개년계획의 성공적 수행에 방점을 두고 있는 가운데, ‘인민생활’(9회), ‘인민경제’(6회) 등 인민들의 생활 개선 문제도 국정의 중요한 과제임을 시사
 - ※ ‘경공업 및 경공업 제품’(4회), ‘금속, 금속제품, 금속공업’(5회), ‘화학, 화학제품, 화학공업’(9회) 등 경제발전 5개년계획 이행에서 중요한 부문들을 구체적으로 제시
 - 핵무기와 관련된 용어로서 핵탄두, 핵기술, 핵무기, 핵전쟁, 핵무력, 핵능력, 핵보유국, 핵장거리, 핵전략, 핵잠수함, 수소탄 등 다양한 표현을 사용(22회), 핵무력 강화가 다방면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과시
 - 코로나19 관련 용어도 ‘방역(4회)’과 ‘보건(8회)’, ‘의료(2회)’ 등 총 14회 언급, 코로나19 방역사업이 중요한 국정과제임을 강조
 - 대외관계에서는 남북관계(남조선·대남·북남 등, 26회)와 북미관계(미국·조미·미 제국주의 등, 18회)에 대한 언급의 빈도가 높은 반면, 대중관계(6회)와 대러 관계(2회)는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남

- 남북관계 용어(남조선·북남·대남·조선반도 등)는 1월 8차 당대회에서 부분적으로 거론되었으나 2월 당 중앙위 제2차 전원회의 보도(2021.2.12.)부터 높은 빈도(26회)로 사용
 - 특히, 군 관련 행사인 국방발전전람회(10.11) 기념연설에서 높은 빈도(29회)로 나타남
 - 이는 ‘군사연습’·‘군비현대화’·‘도발’·‘위협’·‘위선’ 등 용어와 함께 사용함으로써 핵무력 등 군사력 강화를 정당화하는 논리로 남한의 국방력 증강과 한미연합군사훈련 등을 적극 활용해 나가겠다는 의도로 관측

21) “우리식사회주의 건설을 새 승리로 인도하는 위대한 투쟁강령/조선로동당 제8차 대회에서 하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보고에 대하여”(2021.1.9., 노동신문).

다. 감성 분석

- R 텍스트마이닝의 감성분석은 텍스트에 나타난 태도나 의견, 성향들 가운데 긍정적 표현과 부정적 표현을 분류, 정량화함으로써 화자의 주관적 의견을 도출
 - 감성분석 방법은 김정은 육성파일 11개와 보도자료 파일 7개 대상으로 긍정과 부정의 대상이 되는 단어를 추출하여 추세를 분석함으로써 긍·부정적 표현들의 상대적 우위를 점검
- 긍·부정적 표현 분류²²⁾

긍정적 표현	부정적 표현
성과, 영예, 행복, 개선, 사랑, 향상, 감사, 금지, 앞날, 축하, 평화, 락관, 새것, 새시대, 화목, 대화, 경축, 우호, 신뢰, 모범, 번영, 혁신, 안정, 환호 도약 등 26개 단어	도전, 난관, 시련, 위협, 위험, 반사회주의, 비사회주의, 결함, 분발, 곤란, 극복, 억제, 최악, 걱정, 불안, 통제, 적대, 억제, 고난, 제재, 도발, 탄압, 관료주의, 부정부패, 무사안일, 장애, 부족, 심각, 긴장, 애로, 침략, 전쟁 등 34개 단어

- 김정은 육성 전체로는 한 글자보다 크고 8글자보다 작은 단어들을 대상으로 추출한 결과, 긍정적 표현 279회, 부정표현 185회 사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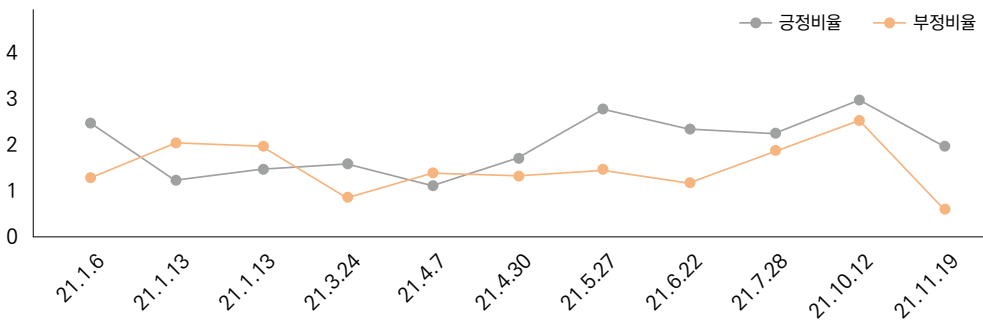
[표 6] 김정은 육성발표 긍/부정적 표현 추이

시기	긍정비율	부정비율	긍정표현	부정표현	1<단어>8
21.1.6	2.45	1.28	23	12	940
21.1.13	1.29	2.03	7	11	543
21.1.13	1.47	1.96	18	24	1,222
21.3.24	1.58	0.85	13	7	824
21.4.7	1.12	1.34	5	6	447
21.4.30	1.67	1.34	30	24	1,797
21.5.27	2.76	1.41	51	26	1,845
21.6.22	2.34	1.17	44	22	1,884
21.7.28	2.22	1.83	17	14	767
21.10.12	2.99	2.54	33	28	1,102
21.11.19	1.95	0.57	38	11	1,944

22) 긍·부정적 표현은 객관적인 기준이 없음에 따라 일반인들이 느끼는 어감을 기준으로 긍정/부정 표현을 주관적으로 정리하였음

- 위 [표 6]을 도표로 정리하면 [그림 6]과 같이 나타남
 - 북한 체제의 경직되고 강압적인 특징으로 육성 연설문에 부정적 표현의 가능성이 높으나 실제로는 긍정 빈출횟수가 279회로 부정 빈출횟수 185보다 더 많음
 - 추세적으로도 초기에는 긍·부정 표현의 출현 빈도가 교차하여 나타나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나 후반부로 가면서 긍정표현이 부정표현보다 지속적으로 상승하였음
 - 이는 연초 새로운 경제발전 5개년계획을 제시하면서 경제제재/국경폐쇄 등 북한이 처한 어려운 환경을 강조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투쟁을 독려하면서 부정적 용어들을 많이 사용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임²³⁾

[그림 6] 김정은 육성 긍/부정적 단어 빈출 추이



- 한편, 시간이 흐르면서 김정은의 대외활동이 세포비서대회, 청년동맹, 녀성동맹, 전국로병대회, 국방발전전담회, 3대혁명소조 등 직능단체들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졌고, 개회사의 성격을 감안할 때 이들에게 인정감을 부여하고 체제안정을 다지는 차원에서 긍정적 표현을 많이 사용한 것으로 보임

23) 김정은은 노동당 6차 세포비서대회 폐회사에서 “우리 인민에게 최대한의 물질 문화적 복리를 안겨주기 위해 나는 당중앙위원회로부터 시작해 각급 당조직들, 전당의 세포비서들이 더욱 간고한 ‘고난의 행군’을 할 것을 결심했다”고 밝혔으며(노동신문, 4.9), 김정은이 “고난의 행군”을 과거형이 아닌 미래형으로 공개 언급한 건 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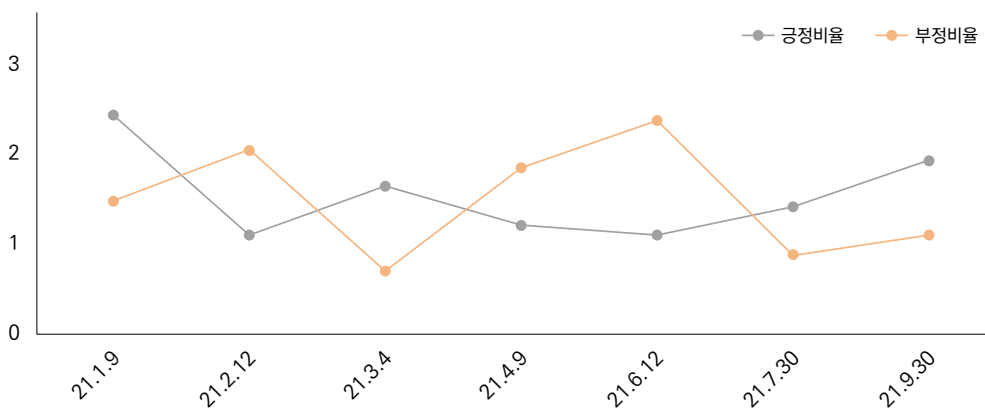
- 이와 같이 긍정표현이 부정표현 보다 많이 출현하는 현상은 김정은의 발언이나 지시사항을 해석, 보도하는 보도문 자료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남
 - 보도자료의 경우 긍정적 표현은 246개, 부정적 표현은 211개로 김정은 육성파일과 비슷한 추세 표출

[표 7] 김정은 보도자료 금/부정적 표현

시기	긍정비율	부정비율	긍정표현	부정표현	1<단어>8
21.1.9	2.44	1.48	107	65	4,387
21.2.12	1.11	2.05	27	50	2,438
21.3.4	1.67	0.72	23	10	1,381
21.4.9	1.22	1.83	24	36	1,970
21.6.12	1.12	2.39	8	16	670
21.7.30	1.41	0.9	25	16	1,771
21.9.30	1.89	1.07	32	18	1,689

- 추세적으로 볼 때 2021년 상반기에는 금/부정 비율이 혼조세였으나 하반기로 갈수록 긍정적 표현이 지속적으로 상향추세

[그림 7] 김정은 보도자료 금/부정적 표현 추이



IV. 전망 및 정책 고려사항

가. 시사점과 함의

- 김정은에게 2021년은 집권 10주년을 앞둔 해로서, 자신이 2012년 집권 시 북한 인민들에게 약속한 사항들에 대한 실질적 성과를 설명하고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해야 하는 시점으로서 특별한 의미가 있었지만 대내외적으로 어려움에 직면
- 김정은은 김정일 사망 이후 2012.4.15. 김일성 100주기 열병식 첫 대중연설을 하였으며, 동 연설에서 강조한 핵심 키워드는 ①정통성(인민) ②국방력 강화 ③민생·경제 ④조국통일이었음
 - 정치사상(정통성/인민): “김일성-김정일 주의 가치를 높이 들고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 위업을 한 치의 드팀도 없이 한걸음의 양보도 없이 오직 수령님식 장군님식으로 끝까지 계승완성”, “장군님께서 제시해주신 인민을 돕자라는 구호”
 - 국방력 강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인민군대를 백방으로 강화”
 - 민생·경제발전: “우리 인민이 다시는 허리띠를 조이지 않게 하여 사회주의 부귀영화를 마음껏 누리게 하자는 것이 우리 당의 확고한 결심”
 - 조국통일/대남관계: “나라의 통일을 원하고 민족의 평화번영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손잡고 나갈 것이며 조국통일의 역사적 위업을 실현하기 위하여 책임적이고도 인내성 있는 노력을 기울일 것”
- 김정은은 집권 10년차를 앞두고 2021년 제8차 당대회 소집을 미리 예고(2020년 8월)하였으며,²⁴⁾ 제8차 당대회 ‘총화연설’을 통해서 7차 당대회(2016년) 이후 국정운영 실적을 평가하고 향후 자신의 국정운영 구상과 대외전략의 방향을 제시

24) 김정은은 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6차 전원회의(2020.8.19)에서 “2016년 열렸던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서 결정한 것들을 분석해서 새로운 과업을 토의하고 결정하기 위해 8차 대회를 소집할 것”을 제의/ 8월 20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6차 전원회의 결정서 -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를 소집할 데 대하여>를 통해 공식화되었으며, 특히 “2021년 1월 8차 당대회를 열어 새로운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을 제시하게 될 것”이라며 새로운 경제발전 구상 제시를 예고하였음.

- 실적 평가: 제7차 당대회 이후 추진된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2016~2020)에 대해, 기간 중 ‘자립적 경제발전의 토대 마련’ 언급도 있었지만, 전반적으로는 “목표들이 심히 미진되고 인민생활 향상에서 뚜렷한 진전을 달성하지 못했다”며 실패를 시인
 - (정치·사상) 인민대중제일주의를 강조하는 가운데, ‘이민위천’, ‘일심단결’, ‘자력갱생’을 우리식 사회주의 3대 이념으로 규정
 - (국방력 강화) 핵무력 건설을 중단 없이 강행 추진한다는 점을 밝히면서, 핵능력 강화 등 국방력 강화를 위한 무기 개발 등 국방 핵심과제들을 구체적으로 제시
 - ※ 김정은이 제시한 국방 핵심과제: △극초음속 미사일 △수중 및 지상에서 발사하는 고체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핵잠수함과 수중발사 핵전략무기 △군사정찰위성 △무인정찰기 등
 - (민생·경제발전) 경제발전 5개년계획 실패 인정, <새로운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 제시
 - (조국통일/대남관계) 남측에 대해서는 실망감 표시, 남측 태도에 따라 남북관계가 “3년전 봄날”로 돌아갈 수 있다는 점 언급, 미국에 대해서는 “강 대 강, 선 대 선의 원칙” 강조
- 2021년 한해 동안 이루어진 김정은의 대외 공개연설 및 메시지의 키워드는 기본적으로 집권 10년차를 앞둔 해라는 시기적 의미를 반영
 - 취임 후 자신의 첫 공개연설(2012.4.15)에서 인민들에게 한 약속을 염두에 두고, 이를 바탕으로 제8차 당대회시(2021.1.5.~12) 총화보고의 이행을 인민들에게 독려하고 사기를 진작시키는 데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볼 수 있음

김정은 첫 공개연설(2012.4)

정치·사상	민생·경제발전	국방력 강화	대남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일성-김정일 주의 • 주체혁명위업 완성 • 제일 좋은 우리인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민이 다시는 허리띠 졸라매지 않도록 • 사회주의 부귀영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인민군대를 백방으로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누구든지 손잡고 • 조국통일의 역사적 위업 실현



제8차 당대회 총화보고(2021.1)

정치·사상	민생·경제발전	국방력 강화	대남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일적령도체계 구축 • 인민대중제일주의 • 이민위천, 일심 단결, 자력갱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실패 인정 • 새로운 경제발전 5개년 계획(21-25) • 자립경제 초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핵무력 건설의 중단 없는 추진 • 소형화, 경량화, 규격화, 전술무기화 • 국방 핵심과제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건부 관계개선 • 근본문제 해결 • (대미) 강대강 선대선



2021년 공개연설 사용 용어

정치·사상	민생·경제발전	국방력 강화	대남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 동지, 인민 • 혁명, 사회, 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 전진, 과업 • 인민생활, 인민경제 • 자력갱생, 자급자족 • 생활, 살림, 기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핵탄두, 핵전쟁, 핵무력, 수소탄 • 자위력, 국방력, 군비, 현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조선, 대남, 북남 • 군사연습, 군비 현대화, 도발, 위협, 위선

- 김정은은 2021년 공개연설을 통해 집권 후 첫 연설(2012)에서 강조한 사항 및 제8차 당 대회에서 제시한 분야별 과업들과 연관성이 있는 용어들을 많이 사용한 것으로 나타남
 - (정치·사상) 집권 후 첫 연설에서 ‘주체혁명위업 완수’와 ‘인민’을 언급하였으며, 제8차 당대회에서는 김정은 시대 핵심적인 통치사상 가운데 하나로 ‘인민대중제일주의’를 특별히 강조 → 이후 진행된 공개연설과 메시지에서도 이를 뒷받침하는 용어들인 ‘우리’, ‘동지’, ‘인민’ 등을 많이 사용한 것으로 평가²⁵⁾
 - ※ 인민대중제일주의는 김정은 자신도 ‘김정은 시대 핵심 통치사상’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관측되는 바, 김정은은 당창건 76돌 기념강연회에서 “최근년 간 인민대중제일주의가 당풍, 국풍, 사회적 기풍으로 확고히 전환됐다”고 평가(2021.10.11, 노동신문)
 - (민생·경제발전) 집권 후 첫 공개연설에서 ‘다시는 허리띠를 조이지 않게 하여 사회주의 부귀영화를 마음껏 누리게 하겠다’고 약속하였지만, 장기간 대북제재와 국경봉쇄·자연재해 등 ‘3중고’를 겪으면서 경제회생이 더 어려워진 상황에 직면, 집권 10년을 앞둔 시점에서 제 8차 당대회를 통해 경제계획과 운용의 실패를 솔직히 시인하고 ‘새로운 목표’를 제시 → 공개연설과 메시지에서는 이를 독려·추동하는 용어인 ‘건설’, ‘전진’, ‘과업’, ‘자력갱생’, ‘자급자족’, ‘생활’, ‘살림’, ‘기풍’ 등 민생과 경제 관련 용어의 사용 빈도가 높게 나타남
 - (국방력 강화) 김정은의 업적으로 가장 내세울 수 있는 분야로서, 집권 후 첫 연설에서 “첫째도 국방, 둘째도 국방, 셋째도 국방”이라고 강조하였으며, 2017년 11월 ‘핵무력 완성’을 선언하고 집권 10년을 앞둔 2021년 8차 당 대회에서는 자신의 성과를 과시하면서 핵능력 제고를 중심으로 하는 국방발전 핵심 과제들을 구체적으로 나열 → 공개연설시 군 관련 용어는 전국로병대회(7.27)와 국방발전전략회의(10.12) 등 국방과 직접 관련이 있는 행사에서만 ‘자위력’, ‘국방력’, ‘군비’, ‘현대화’ 등 사용
 - (대남관계) 집권 후 첫 연설에서 통일문제와 관련, “조국통일의 역사적 위업을 실현하기 위하여 책임적이고도 인내성 있는 노력”을 언급하였으며, 집권 10주년을 앞둔 8차 당 대회에서는 남북관계 경색의 책임을 남측에 돌리면서 ‘근본문제 해결’을 재차 강조 → 공개연설에서는 ‘군사연습’, ‘군비’, ‘현대화’, ‘도발’, ‘위협’, ‘위선’ 등 군사·국방 및 이른바 ‘이중기준’을 비판하는 용어들을 사용

25) ‘우리’ 단어를 둘러싼 의미들은 ‘인민’, ‘동지’, ‘위대’, ‘오늘’, ‘시대’, ‘전진’, ‘요구’ 등이 직접적으로 함께 쓰여 졌는데, 이는 인민들의 위대성을 부각하여 자긍심을 갖도록 하면서 자신이 제시하는 공화국 미래의 비전에 동참할 것으로 촉구하고 성과를 독려하기 위한 의도로 볼 수 있음.

- 한편, ‘부정부패’·‘관료주의’ 용어를 지속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은, 경제난과 고립 심화 등 위기상황에서 사회안정과 경제회생 기반마련을 위해서는 당·관료 조직의 부정부패를 차단하고 규율과 기강을 확립하는 것이 중요한 요인이라는²⁶⁾ 김정은의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평가

나. 전망 및 정책 고려사항

- (전망) 2021년 김정은의 공개연설과 메시지에서 사용된 핵심적 용어들은 ‘인민대중제일주의’와 ‘새로운 국가경제발전5개년 계획’, ‘국방력 강화’ 등으로, 김정은의 국정운영 철학과 국정과제 핵심 아젠다를 반영
- 김정은 공개연설에서 ‘인민’ 용어의 출현 빈도가 높은 것으로 볼 때, 북한이 집권 10년을 계기로 새로운 김정은 시대를 선전하는 통치사상을 고려할 경우, 키워드는 ‘인민’이 될 가능성
 - ‘인민’은 △지난 통치 10년간 김정은이 엘리트 계층과 주민들에게 끊임없이 발신한 핵심 메시지였으며 △집권초기 김정은의 국정경험 부족을 커버할 수 있는 명분이 되었고 △경제난 속에서도 인민들의 불만을 무마하고 현실에 순응(인정)토록 유도하는 레토릭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임
- 경제부문에서는 ‘자력갱생’, ‘자급자족’, ‘건설’, ‘전진’, ‘과업’ 등 용어를 많이 사용한 것으로 볼 때, 대북제재국면 장기화를 염두에 두고 ‘정면돌파전’의 기초를 유지하는 가운데 자원 공급력 제고와 국산화 등 내부 역량 강화에 주력할 것으로 전망
 - 특히, <새로운 경제발전5개년계획>에 따라 건설 부문 등을 중심으로 성과를 독려
- 군사부문에서는 ‘자위력 강화’ 목표 하에 제8차 당대회시 제시한 국방 핵심과제들에 대한 구체적 성과로 첨단화·현대화에 총력 경주 예상
 - 군사부문의 ‘자력갱생’ 의지를 대내외에 과시하고 대미·대남 압박 강화차원의 전략적 목표 달성을 위해 다양한 형태의 신기술 무기와 미사일 발사 등 도발을 시도할 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해 한반도 긴장 조성 소지

26) 박영자, “내핍과 풍풍” 선언한 북한의 제6차 당세포비서 대회,” 통일연구원, Online Series CO 21-31, 2021.4.19., pp. 5-6.

- 내부적으로는 핵능력을 비롯한 전반적인 국방력 제고를 주민들의 자긍심 고취 및 김정은 집권 10년의 최대 업적으로 부각하여 선전
- 대남측면에서는 ‘군사연습’, ‘군비’, ‘현대화’, ‘도발’, ‘위협’, ‘위선’ 등 군사적·부정적 용어를 많이 사용, 당분간 남북대화 재개 등 관계 개선보다는 경색 국면의 지속 가능성에 무게
 - 특히, 한미연합군사훈련과 첨단 전략무기 도입 등 이른바 ‘근본문제’를 거론하는 한편, ‘이중잣대’와 ‘불평등’ 주장을 강화하면서 자신들의 핵개발을 정당화하고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을 비롯한 한미동맹 약화를 지속 추구
- (정책 고려사항) 북한은 2022년 들어 신년사를 발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를 대신하여 개최한 노동당 제8기 4차 전원회의(2021.12.27~31)에서도 별다른 대남 및 대외 메시지를 내놓지 않았음
 - 특히, 금년 들어 총 10여 차례 이상의 탄도 미사일을 발사하는 한편, 김정은의 예고에 따라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하여(3.24) 그동안 유지해 오던 모라토리엄을 파기하는 등 강경한 입장을 유지
 - ※ 김정은, 1.19 당중앙위 제8기 제6차 정치국 회의에서 “우리가 선결적으로, 주동적으로 취했던 신뢰 구축 조치들을 전면 재고하고 잠정 중지했던 모든 활동들을 재가동하는 문제를 신속히 검토” 언급(1.20, 중앙통신)
 - 이러한 동향은 지난 한 해 동안 김정은의 공개연설에서 나타난 특징들을 반영하는 것으로, △경제 상황 개선 등 내부 문제의 해결과 체제 결속에 주력 △핵 협상 관련 타협은 불가 △강력한 군사력 건설과 자력갱생을 통해 현 국면을 헤쳐 나갈 것이라는 그들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임²⁷⁾
- 최근 북한의 태도로 볼 때 기본적으로 올해에도 한반도 정세는 낙관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며, 제7차 핵실험 등 추가도발로 긴장국면은 더욱 고조될 가능성 농후
- 다만, 다음과 같은 점들은 대화재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코로나19 사태가 변곡점을 맞고 있는 상황에서 남한에 새로운 정부가 출범, 북한을 대화로 견인할 수 있는 환경적·정치적 공간이 조성

27) 차두현, “2022년 초 북한 동향과 그 함축성: 그 동인(動因)과 전망”, 아산정책연구원, 이슈브리프, Feb. 07.2022, p.1.

- 바이든 정부로서는 우크라이나 사태 발생과 미중 갈등 심화, 이란 핵문제 등으로 북한문제에 대한 관심도가 저하될 수밖에 없지만, 올해 11월 중간 선거를 감안할 때 신정부 출범 이후 1년 이상 지속되고 있는 비핵화 협상 답보상태에 대한 부담을 갖지 않을 수 없는 상황
- 북한도 2021년 김정은 연설과 노동당 제8기 4차 전원회의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5개년 계획의 성과(특히 농업)를 토대로 국가경제의 자립성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등²⁸⁾ 인민경제 회생을 최우선 과제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대외관계 개선이 필요한 실정
- 따라서, 우리로서는 확고한 안보태세를 바탕으로 한반도 긴장 국면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한편, 장기간 정체 상황에 있는 비핵화 협상의 돌파구 마련을 위한 방안도 함께 모색해 나갈 필요
-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강력한 국방력과 긴밀한 한미공조를 토대로 ‘도발 불용(不容)’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도발-보상의 악순환’ 고리를 끊어내고 새로운 남북관계의 틀을 정립
 - 북한의 ICBM 발사는 모라토리엄 선언(2018년)의 파기이자 안보리 결의 위반으로 대북 추가 제재 등 원칙적 대응이 필요, 7차 핵실험을 비롯한 추가도발 자제를 강력하게 경고
- 다른 한편으로는 새정부 출범을 계기로 대미·대북의 전방위적인 관여를 통해 비핵화 협상의 돌파구를 마련하고 남북관계 개선의 물꼬를 트기 위한 노력도 병행할 필요
 - 한미정상회담 등 계기 양국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북한을 비핵화 협상테이블로 끌어낼 수 있는 새로운 유인책 마련
 - 국제사회와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코로나19 백신과 식량·의약품 등 인도적 지원을 추진, 북한과의 신뢰형성을 모색
 - 새정부 대북정책의 전반적인 방향과 로드맵을 공개, 북한 비핵화와 남북 경제협력 등 주요 사안에 대한 우리의 확고한 목표와 의지를 보여줌으로써 북한으로 하여금 도발보다는 협력을 선택할 수 있도록 유도.

28) 김상범, “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4차 전원회의 정치적 의미,”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IFES 브리프 2022-01, 2022. 1.5, p. 5.

참고문헌

- 권혁철. “이민위천, 남북동포에게 밥이 하늘이다”, 한겨레신문(21.1.18),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979233.html#csidx216de8afdb06c5aa2aaef04b9f2a048>
- 김경윤. “북한 ‘당 최말단’ 세포비서대회 곧 열려…참가자 금수산궁전 참배”, 연합뉴스(21.4.5), <https://www.yna.co.kr/view/AKR20210405006300504>
- 김상권·박철수. “2018년 노동신문 사설과 한반도의 정치적·사회적 사건간의 연관성 분석-텍스트마이닝 분석을 중심으로”, 북한연구학회보, 제23집 제2호, 북한연구학회(2019).
- 김상범. “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4차 전원회의 정치적 의미”,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IFES 브리프 2022-01 (2022).
- 김일기. “김정은시대 북한의 권력이동: 당중앙군사위원회와 국방위원회를 중심으로”, 한국동북아논총 제65호 (2012).
- 박영자. “‘내핍과 정풍’ 선언한 북한의 제6차 당세포비서 대회”, 통일연구원, Online Series CO 21-31 (2021).
- 박중희·박은정·조동희. “북한 신년사(1946-2015)에 대한 자동화된 텍스트 분석”, 한국정치학회보, 제49집 제2호, 한국정치학회 (2015).
- 박철수. “텍스트마이닝을 활용한 북한 지도자의 신년사 및 연설문 트렌드 연구”, Journal of Information Technology Applications & Management, 한국데이터전략학회(2019).
- 브런치. “KoNLP를 이용한 한국어 형태소 분석” (2022) <https://brunch.co.kr/@mapthecity/9>
- 송중호·이상원. “빅데이터 기법을 활용한 북한의 권력구조 분석”, 2015 세계북한학 학술대회 발표자료(2015).
- 오경섭·김진하. “조선노동당 제8차 대회 분석(3): 정치 분야”, 통일연구원, Online Series CO21-03 (2021).
- 이제훈. “북 노동당 규약서 “핵 병진노선” 빼고 “자력갱생 경제건설” 추가”, 한겨레신문(21.6.1), <https://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997614.html>
- 이창용·문호석. “텍스트마이닝을 이용한 북한 보도동향과 북한 도발과의 연관성 분석”, 국방연구 59 권 4호,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2016).
- 이해정·신훈식·이혜진. “텍스트 마이닝을 통한 김정은 시대 경제정책 분석”, 국가전략 제27집 제1호, 세종연구소(2021).
- 차두현. “2022년 초 북한 동향과 그 함축성: 그 동인(動因)과 전망”, 아산정책연구원, 이슈브리프, Feb. 07. 2022.

노동신문(2021).

아시아투데이. 2021.12.30. <https://www.asiatoday.co.kr/view.php?key=20211230010018516>

중앙일보, “최근 남북관계 주요 일지”(2021.10.5.).

통계청 통계교육원. “통계는 어떻게 분석되는가”(2017) http://sti.kostat.go.kr/window/2017b/html/2017_win_3.html

KOTRA. “북한 무역 동향”(2021) https://dream.kotra.or.kr/dream/cms/com/index.do?MENU_ID=1330

Abstract

This paper analyzes the contents of North Korean Chairman Kim Jong-un's public speech in 2021 and the press release of Kim's speech in the North Korean media using Text Mining with R technique, estimates Kim's major concerns and policy priorities, and presents future prospects and policy consideration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erms that emphasize a sense of unity, such as 'we', 'comrade', and 'people', and future-oriented words such as 'society', 'ism', 'revolution', 'construction', 'struggle', and 'development' were accounted for a high frequency. In addition, economic terms such as 'living', 'economy', 'livelihood', and 'life style' also stood out. In his first public speech on April 15, 2012, Kim Jong-un emphasized legitimacy(people), strengthening national defense, people's livelihood, and reunification of the country. It was analyzed that this series of processes and contents were reflected in the public speech in 2021. North Korea is expected to focus on its internal affairs centered on the recovery of the national economy, while externally it will continue provocations, such as resuming missile launch tests. Accordingly, it is not expected that it will be easy to make a breakthrough in improving relations between South Korea and North Korea for the time being. However, considering several factors, such as the prolonged Corona 19 crisis, the continued fixation of the denuclearization negotiations, and the launch of a new government in South Korea, it is expected that there will be a room for improvement in the situation. Therefore, we need to stably manage the security situ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and establish a new paradigm for inter-Korean relations through the two-track strategy of hard-line and conciliatory

Abstract

measures. In other words, it would be desirable for us to maintain the principle of not overlooking North Korea's provocations through strong defense capabilities and a strong alliance with the U.S. and to use a humanitarian approach, such as supporting the North with the Covid-19 vaccine. In conclusion, it is necessary to present a vision and blueprint for forward communication, inclusion and development of inter-Korean relations and guide North Korea to the negotiating table.

Keywords: text mining, public speech, letter, press release, sentiment analysis

INSS

전략보고

April 2022. No. 160

※ 본지에 실린 내용은 집필자 개인의 견해이며,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공식입장이 아닙니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

📍 06295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120 인스토피아 빌딩
☎ 02-6191-1000 📠 02-6191-1111 🌐 www.inss.re.kr